

# 고은 불교대학 소설

도리천은 수미산 높은 지대에 있다  
상수는 아름다운 천녀를 어머니로  
박월 길성 순풍은 세 쌍둥이로...



**기** 어고 세상사람 박월 길성 순풍이  
는 파도더미를 타고 있는 시체  
로 흩어져 있었다. 이미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과 한통속이 된 상수의  
신 역시 여기저기 고기에게 먹거리가  
되어 들어 먹히게로 세 시체와 더불어  
그 일대의 파도더미 위에서 살 것  
과도 타고 있었다.

외에도 한번쯤 그것을 말할 것을  
남겨두었거나 (화엄경) 한길에 소장  
하고 있는 그 용공은 어대인가.  
아니 (법화경) 제바달다름에는 용왕이  
경정을 잘 소장하고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 거센 파도들이 어느 정도 힘을  
일고 가리았을 때까지는 물 속의 고기  
들도 그들의 억척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파도 위에 떠다니는 사  
람의 시체 따위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없었다. 아니 어떤 재빠른 짐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도더미의 무서운  
기세를 이겨낼 수 없는 노릇이어서  
바다 속 깊이 내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현세의 불법이 쇠퇴할 때는 용왕이  
그 용공에서 불법이 적혀있는 그 경  
전들을 잘 지켰다가 다시 온세상에  
내보낸다 하지 않던가.  
그뿐 아니라 스스로 불법에 목  
숨한 파갈라용왕의 여덟살 난 어린 딸  
용녀가 지상으로 나가 남자로 화해서  
높은 수평을 거쳐 이육고 남방 무구  
세계에 가서 부처가 되었다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용공은 바다 밑의 어딘  
가에 있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바다 위의 어대인지도 모른다고  
전해 오거나 그 곳은 어대이  
었다던가.  
현세의 남방 어대에만 있다는  
것인가.

아닐 터이다.  
용공은 남부주 사바세계의 여러 지역  
에서 그곳이 있음을 알고 있다. 중국의  
연안이나 내륙의 호수와 강에까지도 있고  
조선의 세 바다 어디에도 그곳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상수가 그토록 현재와 내세를  
통틀어 찾았던 관세음보살의 신앙으로  
보타락가성을 찾아갔다가 세 사람의 사공  
과 함께 상난 크류를 타고 함께 된 사실  
때문이라도 용공이나 보타락가의 소재를  
찾아내야 하였다.  
하지만 네 구의 시체들은 파도와 파도  
가 맞부딪치는 동안 입은 옷가지가 어느  
새 벗겨졌고 맨 육신조차 물의 사나운 힘

## 다시 태어나기

에 의해서도 고기가 파먹은 것처럼  
여러 부위가 떨어져 나가야 하였다.  
그런 처절한 파도의 힘이 수그러든  
것은 몇시각이 지난 뒤였다. 어느덧 그 시  
체들은 강하도 서쪽 난바다에 떠있었다.  
어대에도 용공이나 보타락가가 나타  
나지 않고 있었다. 바다가 그 노기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지 이번에는 바다속의 고  
기들이 떠올라서 떠다니는 네 시체들을  
건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런 고기들의 종류 가운데는 죽은 육  
신 따위는 건드리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개는 산 육신이나 죽은 육  
신 따위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폭풍이나 태풍이 지나간 직후처럼 고  
기들에게는 그동안 참아온 굶주림 때문  
에 바다 속의 서로 먹히거나 먹는 일 따  
위보다는 바다 위의 먹거리를 찾아 떠오르  
는 것도 그가 최초의 것이다. 그 최초  
의 명계에서 그가 왕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그 뒤로 거기에 오는 죽은 뒤의 영식(靈  
識)들을 하나하나 맞이하여 그들을 마  
지막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왔던 첫 열라국은 천  
상이었던 것이다. 열라라는 이름  
이 붉은 천상의 그 왕국을 언제  
나 운운한 음악이 흐르고 있고  
뜨락에는 백가지의 꽃들이 울긋불긋  
피어서 그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어찌  
그런 곳에 내비가 없으리. 실로 백가지  
종류의 어여쁜 나비들이 이 꽃술과 저  
꽃술에 담겨져 놀고 있었다.  
그런 열라국의 천상에는 인간이 죽  
은 뒤 새로 태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  
런 새 천상 인간 가운데는 어찌다가 악  
인(惡人)도 적지 않아서 불가본 천상의  
왕국과 지



104

그런 뒤에는 즐기는 것 밖에 할  
일이 없다.  
이곳의 1주야는 인간의 1백년이고  
이곳 천인의 키는 1유순이나 크고  
이곳 천인들의 입은 옷의 무게는 6  
주(鈞)나 되며 남녀가 성행위를  
할 때만 인간의 형상으로 바뀌어  
진다.  
여기서 태어나는 아기는 처음부터  
인간계 6세 정도의 아이이다. 누가  
입혀주지 않아도 스스로 옷을 입고  
태어나게 된다.  
수명은 1천세이다.  
사바세계의 주세불(主世佛)인 석가  
모니 부처님이 이곳 도리천에 머물  
러 있는 그의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서 이곳의 3개 일등산 삼쌍봉  
을 위해 그 위치를 정하고 지상  
과 기나긴 지상의 신통하게 곱치  
기도 하고 그 들 중의 어느 하나  
이기도 하였다.  
바로 이 도리천 주거지역 부근에  
희녀시(戲女市)가 있다. 이곳은  
도리천 천인들이 여자와 노는  
곳이다.  
아무리 천인일지라도 아직 인  
간계의 욕망을 벗어난 상태가  
아니므로 그 성적 욕망을  
꺼지지 않았다. 인간계와 다  
름 바라는 것이 이곳의 성욕이  
기도 하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은 남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녀(天女)들도 그런 성욕  
과 성애에 대한 생각은 남  
자보다 더 깊을 때가 많다.  
다만 그들의 성욕과는 달리  
성행위 자체는 인간의 그것과  
다르다.  
첫째 그들에게는 성기를  
통해서 사정되는 정액이 없고  
그 정액 따위를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없다. 굳이 말하자면  
무정(無精)의 성행위인 것이다.  
과연 천상계의 성행위에는  
황홀경의 정에서 정액 대신  
한 공기 바람이 사출(射出)  
되는데 그 바람은 더운 것이  
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것이  
다.  
그런 바람이 나오는 것으로  
천인들의 성욕은 달성되어서  
그 이상의 즐거움을 바라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런 도리천  
의 육계(欲界)에 돌연변이적  
으로 막 태어난 것이 상수를  
비롯해서 박월 길성 순풍이  
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확인해볼 겨를도 없이 도리천  
한쪽 8성 중의 한 성의 천남  
(天男)과 천녀(天女)가  
그들의 주거지역 밖의  
희녀시에서 무한한 성적 쾌락  
을

## 네 사람은 열라청을 거치지 않고 도리천에 6세 아이로 태어났다

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였다.  
네 구의 시체는 많은 고기들의  
밥이 되어서 배 사이에 늘어붙은  
살점 말고는 벌써 앙상한 해골로  
되어 조류에 맡겨져 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아뢰야식은 다른 생명체의 죽음  
과는 달리 사바세계 시간으로 49  
일을 거치지 않고 마치 가벼운  
민들레 꽃씨처럼 날라감으로써  
중음(中陰)의 세계를 지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중음이 가득  
채워진 만중음(滿中陰)을 통  
해서 아뢰야식 자체가 태어날  
세상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명계(冥界)의  
여러 심

육으로 나뉘어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처음으로 열라왕국에 태  
어났던 천인(天人)이 그런  
천상과 지옥으로 가이할  
생명에 대한 최종 심판을  
맡아야 하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었다. 무시무시하기보다  
는 한없이 너그러운 천인이  
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  
야 할 중생의 업도 가능한  
한 일어우려는 자애로움을  
배출기까지 한다. 그 자신  
그들과 똑같은 인류의  
깃줄에 이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열라대왕도 열라청의  
수정거울도 거치지 않고  
네 사람은 바람도 불지  
않는 상태인데 낚는 것

은 수미산 높은 지대에 있다. 그  
천상의 한 가운데에는 선경성(善  
現城)이 있는데 8만유순이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성이다.  
그곳에 제석천(帝釋天)이  
머물고 있고 네 곳에 여덟  
성이 있어서 여러 천인(天  
人)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네 곳에 8성이 있으므로  
모두 32성인데 한 가운데  
의 선경성과 함께 33성의  
천상계가 된다.  
이곳에서는 버릴때에  
모여 진리와 진리 아닌 것  
을 서로 토론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이같은 토론만  
이 거의 유일한 수평이기도  
하고 일무이기도 하다.

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6  
세쯤의 어린 아이로 태어  
날 수 있었던 것이다.  
상수는 지극히 아름다운  
천녀를 어머니로 삼고 태  
어났고 박월 길성 순풍은  
다른 천남 천녀 사이에서  
세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들은 천상세계 도리천  
에 태어나자마자 6세쯤의  
아이로 몇걸음씩 구름 속  
과 같은 마당을 걸었다.  
그곳에 백가지 꽃이 피어  
있었다. 꽃향기가 가득하  
였다.  
"아 좋은 날새다!"라고  
순풍이 소리쳤다.

그림·조항숙

**현대불교**

생광광고

본 권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관에서 받으십시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형, 염주 | 일체 품목 |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주 大明堂 (靈鷲) 急賣**

위치: 충북 단양 적성면 靈鷲山 최고요지(임야512평) \*예르코에서 15분 관광지점, 버스정기(왕궁터 행) \*가격: 평당 5만원(타는 싸운, 값은 공부모자 가격) \*기타: 동남향, 남향향, 도당상용이 아예 펼쳐져있는 경지 최고지

연락처: (0343)71-7242(산주) \*부동산 절대 사절

**小白山 靈通사**

산세가 수려한 곳에서 기도 및 휴양시설 및 분을 모십니다.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 속식 계곡 및 1인1실·기모보일러

연락처: (0444)22-1094 22-0347

**모십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 노전·부전 스님을 초빙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487

대한불교 화계사 조계종

연락처: 902-2663 903-3361

**암·간경화·정신질환·신병 명명없는병·불지병**

6개월 이상 생존 할 수 있으며 자력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기력을 가진 환자로서

4개월간 정기 요양을 받은 환자 10명중 9명 이상 의학적으로 완치를 입증 임상 사례 공개

신앙기도·천도제·구병식약 아님

연락처: (0552)82-8118 (0552)82-8128 H-P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리리 보은암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신남·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 2046 현대불교신문사

韓國民俗哲學研究所

**디스크·관절염·비만 시술 및 개인지도**

● 각 관절·척추·관골·교정법 ● 음양오행·기공·지압법 ● 목·허리 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비만·중풍예방 시술·지도

전화: 543-7306 · 711-4370

張三洙 許重勳 趙 芝賢

**포교당 안내**

● 위치: 망우 사거리 ● 경수: 30명 ● 보증금: 천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천만원 ● 연락처: (02)494-3929 (0573)73-3464 011-218-6055 011-535-3321 012-296-6055

늘지 않는 피부관리(남·여) 기미·여드름·집비섯·늘어진얼굴

**블로잉미용관리외모집**

압구정점 3443-0996 강남전철역점 563-5791

**(이동 약전사) 스님을 찾습니다.**

진주(대동사)에서 직영 스님과 함께 상주하시다가 「연화사」로 옮겨 수행하시던 「대일 스님」을 하동 「약전사」 주지 석림 스님이 찾고 계십니다. \*대일 스님의 거처를 하시는 분은 연락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경남 하동군 대곡리 산 5의 3 약전사 주지 석림 스님 전화(0595)83-5310-11 · 83-5329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법당: 목조30평, 요사2동(25평, 조림식 50평) ▷ 대지: 사용평수 3000평 ▷ 특징: 대진, 논산 중앙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눔 사찰장전 30년 이상됨 ▷ 가격: 1억5천(가격조정가능) 전화: (0461)34-1742 · 011-425-1362

**탁자, 달집, 범상, 문짜, 불교조각**

주요불사십역  
● 범상(대인사) 대적광전 범상 경상  
● 의상(대인사) 대웅전 수미단 달집 문짜  
● 서종(대인사) 범상 수미단 문짜 문짜  
● 범상(대인사) 대웅전 문짜  
● 화엄(대인사) 대웅전 범상 문짜  
● 불교(대인사) 대웅전 수미단 범상 문짜  
● 대적(대인사) 대웅전 문짜 달집  
● 보현(대인사) 대웅전 문짜 달집  
● 대일(대인사) 대웅전 수미단 범상 문짜  
● 서종(대인사) 대웅전 문짜 달집

**대진(전승)공예사**

텔 드론 011-282-4609  
팩스 02-248-4609  
공 방 0346-571-9538  
출 울 012-210-1401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전통 기술로써 각 사찰의 범상을 장엄하여 천 년을 기리 남을 정성으로 다 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협장

진도 방계사: 서화관, 불단  
속초 구복암: 절불관, 달집, 상선각, 문짜  
제주도 원각사: 불단, 달집, 범상문짜  
설악산 오계암: 절불관  
삼각산 명화정사: 절불관, 달집 등  
구모동 원운사: 불단, 문짜  
불교예술품: 불단, 문짜, 문짜  
방우리 보문정사: 불단  
안양 약수암: 불단, 달집, 문짜 등 사찰 불사

연락처: (0346)553-6480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최하시던 스님이 열심성취 이유로 후일부를 찾습니다.  
위치: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50평 (1실 일체전비)  
비용: 보증금 300만원  
시설일체 180만원 · 월세 40만원  
연락처: (02)245-0904 \* 운영 즉시 범위 가능합니다.

**스님을 모십니다**

역학과 염불에 능하신 스님을 모십니다

△ 부산 중심지 포교원

연락처: (051)467-5200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리 303-1

대원사

전화: (0331)262-0606